

전아사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9.10.23	조사자	송민호	유형구분	문화예술-전문가제안
------	------------	-----	-----	------	------------

대상명	전아사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최서해	출간연도	1927
내용	<p>형님, 떠나던 날스밤에 배속에서 어머니에게 글월을 들이고 그 이튿날 원산 내리어서 기차로 서울 왔습니다. 배속과 기차 속에서 새로운 산천을 볼 때 기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하여 뒤숭숭한 맘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언뜻언뜻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귀스가에 도는 것 가타서 남 모르게 가슴을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남대문 역에 내리어서 전차에 오르니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가티 오는 친구는 『저것이 남대문, 저것이 남산, 저리로 가면 본정 - 진고개, 예가 조선은행』 하고 가르치어 주는 때에 나는 호기심이 나서 슬금슬금 보면서도 겨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안할 수 없었습니다. 『아 여보 여태껏 서울을 못 보았소?』 하고 핀잔을 주는 듯 해서 일종의 모욕을 느끼었습니다. 그러나 애써 가르치어 주는 친구를 나물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그저 꿀꺽 참고 잊었습니다. 서울 들어서던 날 나는 하숙을 계동 막바지 어떤 학생 하숙에 정하였습니다. 구린내 나던 그 하숙 장맛은 지금도 히끄태 남아 있습니다. 하로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서 차츰 서울의 내막을 보는 때에 나는 비릇오 내 상상과는 아주 판관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일 눈에 서투른 것은 <할멈>과 <거지>였습니다.</p> <p>형님, 우리 함경도에야 어대 <거지>가 있습니까? 또 <할멈>도 업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골목 골목이 거지어서 나가티 헐벗은 사람은 팬찬치만 양복조각이나 입은 신사는 그 거지 성화에 길 갈 수 업습니다. 그리고 <할멈>이라는 것은 계집 한인데 늙은 것은 <할멈>이요 젊은 것은 <어멈>이라하여 꼭 하대를 합니다. 소위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는 이들도 이러케 하인을 두고 애 재 하대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면 어머니 생각이 불연듯 낫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할 수 할 수 업스면 그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는 때에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나고, 또 그 할멈이 어떻게 가공한지 나는 할멈이 내 방에 불때러 오는 때마다 내 가 대신 때어 주고 또 할멈에게 절때 반말을 쓰지 안했습니다. 이러케 며칠을 하였더니 하숙 주인이 나를 가리치어서 『저게 함경도 상놈의 자식이야! 하는 수 업서 제 버릇 개를 주겠나?』 하고 은근히 욕을 하더라고 가티 잇는 학생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멈도 『서방님 저 부억불도 좀때 주구려』 하고 반말하는 것이 어떻게 끝나던지 그날로 주인과 할멈을 불러 노코 한바탕 구러 노했습니다. 나는 지금 와서는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네를 불상히 녀기는 생각이 내 가 숨에 잇섯다면 나는 가만히 그 모든 모욕을 바다야 울흘 것입니다. 이러케 해노앗더니 주인은 내게 빌리어 주엇던 담뇨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밥값 독촉이 어떻게 심하여지는지 나중은 내 편에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친 일까지 잇섯습니다.</p>		

<p>평가</p>	<p>1920년 무렵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동경 유학을 다녀온 작가였던 데 비해, 최서해는 간도 지방을 떠돌면서 가난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작가였다. 그는 1917년 무렵, 독립운동하러 간도로 떠났다는 아버지를 찾아 무작정 간도로 떠나서 낱팜 팔이 등을 하면서 유랑생활을 했고, 1923년 조선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최서해가 초창기에 썼던 <탈출기> 등의 대표작은 대부분 간도에서 빠져나와 끝없는 가난을 경험했던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 <전아사(餓逆辭)>는 ‘전별사’의 반대로, 즉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하는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서해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자신의 심경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도에 있다가 서울로 처음 온 함경도 출신 사람이 서울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 들면서 예전의 생활을 잊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p> <p>주인공인 ‘나’는 자신의 생활에 실망한 형님에게 자신이 서울로 와서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편지를 쓴다. 그는 모친을 고향에 남겨두고 서울로 와서 잡지사를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 옷치장도 하고 연애 생각도 하는 등, 새로운 생활에 들떠있다. 하지만, 그 사이 모친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간 자신이 가졌던 허영의 생활을 반성한다.</p> <p>이 작품 속에는 최서해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한, 이북 이주민들이 서울로 와서 서울의 다른 문물이나 풍속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상세하게 잘 담겨 있고, 서울 주민이 아닌 이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1920년대 서울의 풍경이 잘 드러나 있다.</p>
-----------	---

2.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참고)

이름	최서해(崔曙海 1901년 ~ 1932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1년 함경북도 성진군 임명면 출생. 본명은 학송(鶴松), 아호는 서해(曙海)·설봉(雪峰), 풍년(豊年). 소작농의 외아들로 출생하여, 아버지는 간도지방으로 떠나고, 어머니 손에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냄. - 1917년 간도로 건너가 유랑생활을 시작. - 1923년 조선으로 돌아와 회령에서 잡역부 일을 하며, 이광수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를 사숙함. - 1924년 양주 봉선사에서 지내면서 첫 번째 단편소설 <토혈>을 <<동아일보>>에 발표함. 이광수 추천으로 <고국> 발표. - 1925년 김기진의 권유로 카프(KAPF) 가입. 역작 <탈출기>를 발표하여 조선 문학계에 큰 충격을 줌. <<조선문단>> 사에 입사. - 1926년 창작집 <<혈혼>>을 출판함. <<현대평론>> 문에 담당기자 역임. - 1927년 조선문예가 협회에서 이익상, 김광배 등과 간사 활동. <<조선문단>>에 <홍염>, <전아사>를 발표. - 1929년 카프(KAPF) 탈퇴함. <<매일신보>> 기자됨. - 1930년 <<매일신보>> 학예부장 역임. - 1931년 창작집 <<홍염>>을 삼천리사에서 간행. - 1932년 7월 9일 위문협착증으로 사망. 한국 최초의 문인장으로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4년 <토혈(吐血)> (<<동아일보>>) - 1924년 <고국(故國)> (<<조선문단>>) - 1925년 <탈출기(脫出記)>(<<조선문단>>) - 1925년 <기아(饑餓)와 살육(殺戮)>(<<조선문단>>) - 1925년 <큰물 진 뒤>(<<개벽>>) - 1927년 <홍염(紅焰)>(<<조선문단>>) - 1928년 <갈등(葛藤)> (<<신민>>) - 1930년 <호외시대(號外時代)>(<<매일신보>>) 	
수상경력		
기타사항	-	